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서경'의 전모(典謨)는 <요전>에서 요 임금이 따님을 시집보내는 것으로 기록을 시작하고 <익직>에서 봉황이 와서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시경'의 '주남'과 '소남'은 <관저>에서 시작하여 <인지>와 <추우>로 마무리를 지었다. 모두 가정에서 시작하여 왕자(王者)의 상서로움에 이르고 있다. '춘추'는 "재훤귀봉(宰喧歸捧)"에서 시작하여 "획린(獲麟)"에서 절필하였으니, 그 뜻은 또한 이와 같다. 그러나 '시경'은 단지 영탄하여 찬미할 따름이오, '춘추'는 비난하고 포폄(褒貶)하여 애달프게 여길 따름이다. 그 근본을 찾으면 '서경'의 '흠(欽)'에 있다. 흠하면 '서경'의 상서로움을 이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춘추'의 꾸짖음이 있다. '흠'은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하는 심법(心法)으로 다만 '서경' 일경의 전체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경의 전체이다. 그러므로 '시경'과 '춘추'를 읽는 사람은 '서경'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우공>은 '하서'에 들어 있다. 우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지 않은 것은 <우공>이 요 임금 때 지어졌기 때문이다. <탕서(湯誓)>와 <태서(泰誓)>는 오히려 걸(桀)을 추방하거나 주(紂)를 정벌하기 전인데 왕이라 부른 것은 명분을 정하여 걸과 주의 죄를 바로잡는 것이니 '서경'의 근첨하기가 이와같다.

성인이 국토를 경계지을 때 반드시 천문(天文)을 본받는다. 우 임금이 구주(九州)를 구분한 것은 성토(星土)의 구야(九野)를 본받은 것이고, 순 임금이 십이주(十二州)를 처음 만든 것은 성기(星紀)의 십이진(十二辰)을 본받은 것이다. 십이진 가운데 축(丑)을 성기로 삼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한 후에 성진(星辰)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이 십이주로 나누었는데 상(商) 나라 때에 이르면 다만 구유(九有) 구위(九圍)라 말하였고 '주례'의 직방씨(職方氏)'에도 구주를 나열하였으며, '집전'에서는 어느 때 다시합하여 구주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신안(新安)진씨(陳氏)는 "'좌전'의 '옛적 하 나라가 바야흐로 덕이 있을 때 구주의 장관이 청동을 바쳤다'는 구절을 근거로 삼아, 우가 즉위하고 또 아울러 구주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동을 바치고 솥을 만드는 일은 우 임금때의 일이다. 그러므로 비록 하(夏)라고 일컬었으나 이는 우 임금이 치수하고 공을 이룬 때로 순 임금이 십이주로 나누기 전의 일이요, 우가 즉위한후의 일은 아니다. 내 생각에 우 임금은 반드시 순 임금이 만든 제도를 감히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오, 우 임금의 아들인 계(啓)의 시대에 우 임금의옛 제도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합하여 구주가 된 것은 아마도 계의 뒤였을 것이다.

<우공>의 "치양급기(治梁及岐)에서 지우횡장(至于衡漳)"까지에 대해 '집전'은 "양산(梁山)과 기산(岐山)은 모두 기주(冀州)의 산으로 양산은 여량산(呂梁山)이다"고 하였다. 여불위(呂不韋)는 "용문(龍門)을 뚫지 않고 여량산을 파기 전에는 황하가 맹문(孟門)의 위로 나왔다"고 하였고, 역도원(酈道元)은 "여량산의 돌이 우뚝 솟아 황하의 흐름이 세차게 부딪쳐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고 하였다. 횡장(衡漳)은 두 물의 명칭이다. 하나는 상당(上黨) 첨현(沾縣) 대민곡(大黽谷)에서 나오는데 청장(淸漳)이라 부르고, 하나는 상당군 장자현(長子縣) 녹곡산(鹿谷山)에서 나오는데 지금의 노주(潞州) 장자현(長子縣)으로 탁장(濁漳)이라 부른다. "이 탁장을 횡수라고 부르며 동쪽으로 업(鄴)에 이르러 청장과 합친다"고 하였다. 업은 지금 노주의 섭현(涉縣))이다. 또 상흠(桑欽)이 이르기를, "청장·탁장은 근원을 달리하나 아래로 흘러가다 서로 합하여 함께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내가 전에 사신으로 갈 때 연(燕)땅에 이르러 배를 노하(潞河)에 띄워 물결을 따라 남으로 가서 무청현(武淸縣)의 경계에 이르렀고, 어하(御河)에 들어가서는 물결을 거슬러 서쪽으로 갔다. 어하는 동북쪽으로 흘러 노수와 합하여 바다로 들어가 창주(滄州)와 덕주(德州)를 지나 동창부(東昌府) 임청현(臨淸縣)에 이르러 청하(淸河)로 들어간다. 어하는 동쪽으로 흐르고 청하는북쪽으로 와서 이곳에 이르러 합해진다. 어하의 물은 흐리고 남하의 물은맑으니 상흠의 말과 '방역(方域)'을 가지고 살펴보면 마땅히 이곳이 두장수(漳水)다. 어(御)와 횡(衡)의 글자는 서로 비슷하니 횡의 글자가 변하여 어의 글자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3)

논 어 해 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權貞澤

제8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자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학문도 바탕이 견고해지지 않는다, 성실과 신의를 위주로 삼되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 것이요, 과오를 저지르면 그것을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한다.

[원문]

子曰 君子不重則不威니 學則不固니라 主忠信하며 無友不如己者요 過則勿憚改니라.

[자왈 군자불중즉불위니 학즉불고니라 주충신하며 무불지기자요 과즉물탄개니라.]

[이해]

덕행이 학문보다 먼저 닦아져야 됨을 강조하였는데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라 함은 함께 연을 지향해서 도로 나아가는 친구로 교유 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

제9장

증자가 말하였다. "죽은 사람을 신중히 다루고 먼 조상을 추모하면 국민들의 덕성이 두터워질 것이다.

[원문]

曾子曰 愼終追遠이면 民德이 歸厚矣리라.

[증자왈 신종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의리라.]

[이해]

죽은 사람을 정중하게 다루고 먼 조상까지도 추모의 정을 잊지 않을 때 백성들의 기풍이 후해지게 되리라는 말이다.

제10장

자금(子禽)이 자공(子貢)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나라에 가시게 되던지 반드시 그 나라에 정치에 관한 것을 참견하시는데 그것은 선생님 스스로가 요구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시켜서인가요."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온화·선량·공손·검약·사양 다섯 가지로 덕성을 체득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진해서 요구하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자진해서 요구하는 경우 하곤 다릅니다."

[원문]

子禽이 問於子貢曰 夫子至於是邦也하여 求之與아 抑與之與아 子貢曰 夫子는 溫·良·恭·儉·讓以得之하시니 夫子之求之也는 其諸異乎人之求之與인저.

[자금이 문어자공왈 부자지어시방야하시니 구지여아 억여지여아 자공왈 부자는 온·양·공·검·양·이득지하시니 부자지구지야는 기제이호인지구지여인저.]

[이해]

자금은 진강(陳羌)의 자(字)로 공자의 제자인데 나이가 불확실하다. 자공(子貢)은 단 목사(端木賜)의 자며 위(衛)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보다 서른여섯 살이 연소하였다. 아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운데 공자의 완성된 인품에 대한 요체가 잘 드러나 있다.

제11장

공자가 말하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엔 그 뜻하는 바를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행적을 살펴서 삼년 동안 아버지가 해오던 방법을 고치지 않을 때라야 가히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

[원문]

子曰 父在에 觀其志요 父沒에 觀其行이나 三年無改於父之道라야 可謂孝矣니라.

[자왈 부재에 친기지요 부몰에 관기행이나 삼년무개어부지도라야 가위효의니라.]

[이해]

부친이 돌아가신 후 가능한 삼년이내에는 아버지가 실행해오던 방법을 고치지 않는 것이 효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설이 분분하다. 그렇다고 무능(無能)이나 악덕(惡德) 같은 졸음까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계속 연장 시켜야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이다.

제12장

유자가 말하였다. "예의 실용가치는 조화가 가장 귀중한 것이다. 옛 성왕들의 도는 이 조화에 기초를 두었기에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며, 일이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조화로움을 지향하는데도 순조롭게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화의 가치성만 알고 너무 조화에 치우쳐버린 것이어서 이것을 예로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또한 순조롭게 행하여 질수 없는 것이다.

[원문]

有子曰 禮之用이 和爲貴하니 先王之道가 斯爲美라 小大由之이나 有所不行이니라 和和而和로되 不以禮節之면 亦不可行也니라.

[유자왈 예지용이 화위귀하니 선왕지도가 사위미라 소대유지이나 유소불행이니라 화화이화로되 불이예절지면 역불가행야니라.]

[이해]

사회생활 보편 규범과 통상의 질서가 옮겨 유지되기 위한 예절과 조화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제13장

유자가 말하였다. "약속의 정의에 가까우면 그 말대로 시행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부드러움과 욕됨을 멀리할 수 있으며, 인연을 맺는 사람이 가까이 할만한 인물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존경할만하다.

[원문]

有子曰 信近於義면 言家復也며 恭近於禮면 言恥辱也며 因不失其親이면 亦可宗也니라.

[유자왈 신근어의면 언가복야며 공근어예면 언치욕야며 인불실기친이면 역가종야니라.]

[이해]

정의로운 약속. 예절에 부합되는 공손. 현능한 인물과의 교제가 적절히 배합될 수 있다면 이미 상당한 덕성을 구비한 단계에 진입해 있는 어진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제14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배불리 먹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거처하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며, 도가 있는 인격자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가히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 할만하다."

[원문]

子曰 君子는 食無求飽하고 居無求安하며 敏於事而愼於言이요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乎學也已니라.

[자왈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안하며 민어사이신어언이요 취이도이정언이면 가위호학야이니라.]

[이해]

사람이면 누구나 선망하는 배불리 먹고, 편히 지내는 것이지만 군자는 그런 일반세속의 말단적인 풍요나 안일에는 연연하지 않는 법이나 좋은 일에 실천에 머뭇거림 없고, 말을 앞세우지 않음은 물론 인격을 갖춘 현자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기에 힘쓰는 배움을 닦고자 노력하라는 뜻이다.

제15장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더라도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더라도 교만함이 없다면 어떠합니까?"공자가 말하였다. "괜찮기는 하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자공이 말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끊는 것 같고, 쪼는 것 같고, 닦는 것 같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을 두고 한 말이 오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사야, 네가 비로소 더불어 시를 논할 만 해졌도다, 지나간 것들을 일러주니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아는구나."

[원문]

子貢曰 貧而無諂하며 富而無驕하면 何如이니까 子曰 可也나 未若貧而樂하며 富而好禮者也니라 子貢曰 時雲如切如磋하며 如琢如磨라하니 其斯之謂與인저 子曰 賜也가 始可與言詩已矣로다 告諸往而知來者로다.

[자공왈 빈이무첨하며 부이무교하면 何如이니까 子曰 可也나 미약빈이락하며 부이호예자야니라 자공왈 시운여절절여차하며 여탁역마라하니 기사지위여인저 자왈 사야가 시가여언시이의로다 고저왕이 지래자로다.]

[이해]

도를 즐기고 예를 좋아하는 것에 관해 주희(朱熹)의 집주(集注)에는 자공이 본래 가난했다가 뒤에 부유해졌으나 빈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절조를 지키고자 노력한 자신을 빗대어 공자에게 질문하자 공자는 자공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 앞으로 힘써야 할 바를 깨우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특별기고 〈40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6)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이 때 충의공의병군대는 성안의 왜군들의 숫자의 7배에 달하여, 영천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탈환 수복작전을 펼치고 있어 필승의 각오로 전투를 치를 차비를 하고 있었다. 성의 동문과 북문으로 쳐달려 나온 왜적들에게, 우리 의병군의 1진이 밀리면 2진이 나가고, 2진이 밀리면 3진이 나가고, 적이 쫓아오면 후퇴하고, 적이 후퇴하면 쫓아가고, 종일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이쪽은 적의 일곱 배, 이쪽이 한번 뛰면 적은 일곱 번 뛰어야 했다.

해가 기울 무렵에는 왜적은 축늘어져 성안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충의공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총력으로 그들을 밀어붙이면서 성문으로 쫓아 들어갔다. 의병군들은 개미떼처럼 흩어져 가가호호 불을 질러놓았다. 연기와 불길을 견디지 못해 왜적들은 더러는 타죽고 나머지는 동헌을 비롯한 관가로 쫓겨 조총으로 항거하였다. 날이 어둡기 시작했다. 이미 목을 친 왜적만도 1백여 명이나 되었다. 충의공은 부하 장수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물러나왔다. 지칠 대로 지친 적은 이제 영천성을 빠져나가 도망갈 기력도 없을 것이었다.

이튿날 28일 동이 틀 무렵 미리 준비해 두었던 나무로 짜서 만든 너르고 긴 사다리와 망으로 된 자리를 비늘처럼 연이어서 공성(攻城) 도구를 이용하여, 일거에 다시 성내로 쳐들어간 충의공은 왜적들이 몰려 있는 동헌 일대를 포위하고 화공을 감행하였다.

천지를 진동하는 대폭음과 함께 건물들이 산산조각 나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폭음과 불길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잇따라 일어나면서 적병들이 허공에 치솟고 공격하던 우군도 여기저기서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왜적의 화약고에 불이 붙은 것이었다.

서둘러 태세를 재정비한 충의공은 의병의 장병들과 함께 불속에서 뛰어나오는 3백 수십여 명의 왜적들을 칼·창·몽둥이로 치고 찌르고 짓밟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 속에서 타죽은 적도 적은 수가 아니었다. 이틀 사이에 영천성을 지키던 적 5백 여 명은 전멸하였다. 용케 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건진 자 2명이 경주로 도망쳐 달아났다. 이 전투에서 우리 측은 전사 83명, 부상 2백38명, 노획품은 말 2백 여 필, 조총과 칼과 창(刀槍)이 9백 여 자루였다.

왜적이 주둔하고 농성한 영천성을 탈환 수복한 것이었다. 의병들은 우선 왜적에게 갇혀 있던 남녀노소 1천9백(십) 여 명을 점열(點閱)하여 식량과 약품을 주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절하며 감사하기를 "나를 나은 것은 부모요 살린 것은 장군입니다. 장군의 공덕은 우리 부모와 한가지이니, 그 덕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호천망극(昊天罔極)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충의공과 휘하 장병들, 그리고 풀려나게 된 백성들이 서로 마주 보다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눈물을 삼켰다. 꿈같은 일,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었다.

영천성의 탈환수복은 왜적에게나 우리의 의병과 관군에게서나 다 같이 큰 이변이었다. 적은 자신을 잃고 우군은 자신을 얻었다.

29일에는 조경온(曺景溫)의 부음이 이르자 곧 왕곡(往哭)하였다. 조경온은 충의공과 같은 고을 사람인데 효성과 의리로 이름이 자자하였다. 충의공이 의병을 창의할 때,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구해야 한다'고 글을 보내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부모상을 입은 조경온이 여막(廬幕)에서 시묘 중이라 사양하였는데, 이때에 왜적에게 변을 당한 것이었다. 효도와 순절을 기린 다음 염습하고 초빈(草殯)한 후에 돌아왔다.

8월에 들어 충의공은 정세아(영천의병장)·윤현(尹晛 : 대구부사)·김윤국(영천군수)·박의장(朴毅長 : 경주판관)·홍천뢰(洪天賚 : 의흥복병장義興伏兵將)·신해(申海 : 하양대장河陽代將)·최대기(崔大期 : 경산대장慶山代將) 등과 협력하여 자인(慈仁 ; 현 경산시 자인면 일대)현의 왜적을 치기로 합의를 보았다. 병력은 도합 5천명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왜적은 성을 버리고 경주로 도망쳐 버렸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안강(安康)에서 사람이 달려왔다. 경상좌병사 박진(朴晉)이 힘을 합하여 경주를 치자는 사연이었다. 싸우지 않고 자인을 탈환한 5천 병력은 경주로 향하였다.

8월 20일, 1만 병력이 경주 서남쪽의 모량역(牟良驛 : 모량리毛良里)에 집결하였다. 충의공 휘하 장병 5천명, 박진 휘하도 5천이었다. 다음날인 21일 새벽. 충의공 부대를 선봉으로 마침내 진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숱한 총성과 함성·비명과 함께 후진(後陣)으로 전진하던 박진 부대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전날 밤 어둠을 타고 북문으로 빠져나온 적이 숨어 있다가 불시에 측면공격을 가해 온 것이다. 부대는 무너지고 박진은 안강 방향으로 빠져 달아났다. 동시에 앞에 보이는 경주성도 떠들썩했다. 지금까지 잠잠하던 성벽에 일제히 적병이 나타나고 총탄이 비 오듯 날아왔다.

그동안에도 뒤에서는 박진의 부대를 짓밟은 적이 바짝 추격하여 왔다. 충의공이 지휘하는 선봉에 섰던 의병 5천 명은 앞뒤로 협격을 받아 자칫하면 전멸할 판국이었다. 선두의 충의공은 급히 북을 울리고 말고삐를 우(右)로 틀어 남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방향을 바꾼 행군대열은 밀고 밀리고, 성난 파도같이 끝없이 뛰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본원 종사 연구위원 권 혁 채

〈지난호에 이어〉

Ⅲ 順命篇 (순명편)

○子曰(자 왈) 死生(사생)은 有命(유명)이오 富貴(부귀)는 在天(재천)이니.

萬事分已定(만사분이정)이어늘 浮生空自忙(부생공자망)이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으며"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하여져 잇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이느니라. 고 하셨다.

참고: 命-목숨 명, 死-죽을 사, 富-부자 부, 浮-뜰 부, 倖-요행 행, 免-면할 면.

○景行錄 (경행록)에 云(운) 禍不可倖免(화불가행면)이오 福不可再求(복불가재구)니라. 時來風送滕王閣(시래풍송등왕각)이오 運退雷轟薦福碑(운퇴뢰굉천복비)라 하였다.

해설: 경행 록에 이르기를, 禍(화)는 가히 요행으로는 면하지 못하고, 복은 가히 두 번 다시 얻지 못 할 것 이니라" 때가 오면 왕발이 순풍을 만나 등왕각에 가서 서문을 지어 이름을 세상에 높이고 운이 없으면 천신만고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참고: 등왕각(등(滕)王閣)은 양자강 유역 남창(南昌)에 잇는 누각을 말한다.

免-면할 면, 滕-나라 등, 閣-집 각, 轟-울릴 굉, 薦-천거할 천, 碑-비석 비.

○列子 曰(열자 왈) 癡聾瘖瘂(치롱고아)도 家豪富(가호부)요 智慧聰明(지혜총명)도 却受貧(각수빈)이라, 年月日時該載定(연월일해재정)하니 算來由命不由人(산래유명불유인)이니라고 하셨다.

해설: 열자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이 있고 벙어리라도 집은 호화롭고 부자요, 지혜 있고 총명하지만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있느 니라. 운수는 해와 달과 날과 시가 분명히 정하여 있으니 계산해 보면 부귀는 사람으로 말미암음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는 것이니라," 고 하셨다.

참고: 열자(列子)의 이름은 어구(御寇)) 이며, 전국시대(戰國時代) 초기 노(魯)나라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을 엮은 책 열자가 있다.

痴-어리석을 치, 聾-귀먹을 롱, 瘖-고질 고, 瘂-벙어리 아, 豪-호걸 호, 慧-밝을혜, 지혜혜, 聰-귀밝을총, 却-물리칠각, 該-그해, 載-실을재, 算-셈할산

Ⅳ 孝行篇(효행편)

○詩 曰(시 왈) 父兮生我(부혜생아) 하시고 母兮鞠我(모혜국아) 하시니 哀哀父母(애애부모)여 生我劬勞(생아구로) 삿다 欲報深恩(욕보심은) 인대 昊天罔極(호천망극) 이로다.

해설: 시전에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아아 애달프도다.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 하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넓은 하늘도 다함이 없도다." 하셨다.

참고: 詩傳(시전)은 詩經(시경)을 해설한 것으로써 공자님께서 편찬하셨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